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지도 교수제 연구

안 덕 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 I. 서 론

1994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새로운 학장의 취임과 함께 지도 교수제가 학교의 공식적인 제도로써 도입되었다.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한국의 학생들은 대개 선생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비판없이 따르는 것을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으며, 또 이러한 것은 지금도 모든 학교 기관에서 가장 본받아야만 될 만한 행동의 표본이라고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고, 한번 스승이면 평생 자기의 스승으로서 간주하고 또 그들을 받들고 예의를 갖추는 것 또한 미덕이라고 여겨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공자나 맹자들의 영향을 받은 뿌리깊은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선생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심은, 선생이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하고도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이고 그로 인하여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고 진정한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는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그런 연유에서 학생들은 대개 수동적

이며, 여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스승과 선생간의 대화의 창을 열려 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택하고 있어 대개의 교육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이거나 대규모의 실험실 교육이었다. 그러므로, 학생 개인은 좀처럼 선생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들은 대단히 분화된 전문과목 선생들의 집단과 학생들 집단의 만남의 형식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어[3] 이것 또한 학생들의 행동을 몹시 수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보여졌다.

이런 취지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1994년 새로이 학장의 취임과 더불어 지도 교수제를 학장의 주도하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과거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이러한 지도 교수제가 정부 당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어 실상 지도 교수제의 시초는 독재 군사 정권 하에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간의 대화보다는 독재

군사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소요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수들이 할당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면담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되었고, 필요하다면 문제학생들의 학부형까지 면담하여 교수들이 직접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양상은 완전히 자리를 감추었고, 이제 보다 더 의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수동적인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지도 교수제가 도입되었다. 1994년 새로이 취임한 학장은 선생과 학생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하여 지도 교수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임 교수들에게 1인당 약 4명의 학생이 배정되었고, 대부분 의예과 2학년에서 본과 4학년 사이의 학생들중 4명이 선택되었다. 교수들에게는 학생들의 신상명세서가 주어졌고, 학생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된 지도 교수제 도입이후, 일체의 학장이나 또는 다른 행정부서의 간섭 없이 방임형태로 있는 상태에서 2년간의 학생들의 지도 교수제에 관한 의식 및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우선 지도 교수제가 도입된 1994년부터 1년 후 1995년 1학기를 마친 그 당시 의과대학 2학년, 3학년 학생 233명(2학년:111명, 3학년: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다시 1년 후인 1996년 동일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 양식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다. 2년 동안의 지도 교수제에 대한 진행 여부 및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였다. 본 설문조사는 우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이 조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응답 중 공통된 부분들을 한데 취합하여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순으로 나열하였다. 95년 설문당시 총 응답자는 233명이었으나, 96년 같은 설문지에 응답한 학생은 78명이었다.

## III. 결 과

1995년 첫 번째 설문조사에 당시 2학년 3학년 학생들 거의 대부분(233명)이 응답하였으나, 1996년 설문조사에는 전체 숫자의 1/3 정도(78명)만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솔직하고 열린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였다. 1995년도 조사대상 숫자와 1996년 조사대상 숫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뒤에도 언급되겠지만 아마도 지도 교수제에 대한 실망감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95년과 96년의 응답자의 차이가 심하여 통계학적 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이 논문의 목적 역시 통계학적 의의를 찾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교수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2년간의 지도 교수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는

**표 1. 지도 교수제 목표에 대한 인식 ( ) 비율**

	1995년	1996년
인간관계적 측면	167 (71.7)	47 (57.3)
교육적 측면	114 (48.9)	29 (35.4)
학교-학생간 매개적 측면	19 ( 8.2)	1 ( 1.2)
기 타	13 ( 5.6)	-
무응답	12 ( 5.1)	5 ( 6.1)

**표 2. 지도 교수에 대한 요구사항 ( ) 비율**

	1995년	1996년
인간관계적 측면	57 (24.5)	40 (44.9)
교육적 측면	122 (52.4)	17 (19.1)
기 타	33 (14.2)	1 ( 1.1)
무응답	38 (16.3)	31 (34.8)

자유서술식으로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같으나 다르게 표현된 것들은 정리하여 하나로 묶었으며, 응답횟수가 많은 순서부터 적은 순서로 나열하였다.

1. 1994년 본교 의과대학의 지도 교수제가 도입될 당시의 목적은 학생-교수간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이 제도 시행 1년 후, 그리고 2년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표 1과 같이 분류되었다.

첫째, 인간 관계적 측면이라는 반응에는 사제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인간 관계 개선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 혹은 대화를 통한 교류 및 대화의 단절 극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 교수제 시행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응답자의 반응 비율이 95년 조사에 비해 96년의 조사에서는 다소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적 측면이라는 반응에는 학생들에게 학업·진로문제·고민상담 및 조언을 해주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능, 혹은 학교교육·바람직한 의사상 및 병원생활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 등의 인식이 나타났다. 셋째, 학교-학생간 매개적 측면이라는 반응에는 교수와 학생간의 의견 전달 및 건의사항 등의 토의를 통해 피드백을 얻고 학교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인식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도 교수제 시행 1년 후인 95년의 조사에서는 ‘모르겠다’ 혹은 근본적 목적 외의 기타 의견들이 5.6%로 나타났으나, 96년의 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도 교수제 시행 2년 후 학생들에게

표 3. 지도 교수와의 면담 경험 여부 및 실태 ( ) 비율

	1995년	1996년
경험 있음	30 (12.9)	17 (22.4)
1회	18 (60.0)	11 (30.6)
2~5회	7 (23.3)	5 (13.9)
6회 이상	2 ( 6.7)	3 ( 8.3)
경험 없음	203 (87.1)	59 (77.6)
향후 면담 계획 有	107 (52.7)	12 (21.4)
향후 면담 계획 無	81 (39.9)	35 (62.5)

제도적·기능적 차원에서 다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은 학생들에게 “지도교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표 2와 같이 분류되었다.

첫째, 인관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은 지도교수에게 보다 적극적인 모임이나 대화의 기회를 주신해 줄 것을 희망하거나 학생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충고 및 상담을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수업, 학교생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나 건의사항의 수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인간 관계적 측면은 95년 조사에 비해 96년의 조사에서 반응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 교육적 측면의 반응은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은 지도교수제의 목적에 있어서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 보다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95년의 조사에 있어서 기타 의견에 반응이 높은 것은 시행 후 1년 동안 지도교수제

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3. 지도 교수제 시행 1년 후인 95년의 조사에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전체 응답자의 12.9%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96년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22.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의 증가는 경험이 없다는 반응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도교수와의 면담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1회뿐이었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면담 경험이 있는 경우일지라도 형식적인 면담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그리고 지도교수와의 면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면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5년의 조사에서는 52.7%의 학생들이 면담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고 반응하였으나 96년의 조사에서는 불과 21.4%만이 계획하고 있었다. 즉, 지도교수제의 시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정비 및 교수-학생간 의식의 변화

**표 4. 현행 지도 교수제에 대한 만족도 ( ) 비율**

	1995년	1996년
매우 유익하다	19 ( 8.1)	4 ( 5.1)
유익하다	46 (20.0)	12 (15.4)
보통이다	76 (32.6)	17 (21.8)
별로 유익하지 않다	66 (28.3)	18 (23.1)
전혀 유익하지 않다	3 ( 1.2)	27 (34.6)

**표 5. 현 지도 교수에 대한 인식도 ( ) 비율**

	1995년	1996년
이름을 알고 있음	207 (88.8)	68 (88.0)
이름을 모르고 있음	21 ( 9.0)	9 (12.0)

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지도교수와 의 면담 내용으로는 스승의 날이나 교수 개인사에 대한 단순 인사 방문에서 이어진 간단한 대화였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 학교생활이나 진로문제 등에 관한 고민상담과 개인적 고민상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4.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도 교수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의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교수제의 유익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9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6%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폐지해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타났다. 결국 지도 교수제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95년의 조사에서 약 29.5% (별로 유익하지 않다+전혀 유익하지 않다) 였으나, 9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7.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시행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유익하다고 반응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와 진지한 면담 경험이 있었으며, 따라서 지도교수제의 효과적인 시행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5. 표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 교수제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5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96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지도교수에 대한 교체 희망 여부와 현재 지도교수에 대한 인식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자신의 지도교수 이름을 모르고 있는 학생은 95년 조사에서 9.0%, 96년 조사에서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지도 교수제는 전임 교수1인당 학생 4명이 임의적으로 배당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지도교수를

	1995년	1996년
교체를 희망함	50 (21.4)	32 (43.2)
교체를 희망하지 않음	159 (68.2)	42 (56.8)

	1995년	1996년
제도적 정착화 필요	53 (22.8)	28 (42.4)
학생-교수간 상호 노력 필요	56 (24.0)	16 (24.2)
활성화 희망	29 (12.4)	1 ( 1.5)
폐지 희망	-	13 (19.7)

통보 받기 때문에 지도교수에 대한 1차적 인식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 또한 현재의 지도교수에 대한 교체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학생들 대부분은 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95년 조사에 비해 96년의 결과에서는 2배 이상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현행 지도 교수제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따라서 지도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이 추론된다.

7. 현행 지도 교수제에 대한 학생들의 평소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의 반응을 표 7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정착화의 필요성이다. 지도 교수제 도입 후 1년이 지난 95년의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정착시킬 것을 희망하거나 좋은 제도이지만 시행이 어렵

다는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22.8에 불과하였으나, 96년의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식의 반응이 42.4%로 나타나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나 제도적 불합리성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학생-교수간 상호 노력의 필요이다. 즉, 학생들은 형식적 제도 내에서 사제간의 실질적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년의 조사와 96년의 조사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활성화 희망에 대한 의견은 95년 조사에서 12.4%로 나타났으나 9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5%만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폐지 희망에 대한 의견은 95년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96년의 조사에서 19.7%로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현행 지도 교수제는 명목상 존재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자 할 경우 반드시 제도적 개선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다.

#### IV. 고 찰

지도교수 (Mentor)란 어원은 본디 Homer가 쓴 *Odyssey*중 Odysseus가 자기아들 Telemachus의 보호자겸 선생으로서 Mentor를 선택하게 되었다[4].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쓰는 Mentor의 기원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현대와 같은 학교가 정착되기 전 유교의 영향을 받아 세운 원시적인 서당의 형태가 학교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때 스승은 유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2의 부모로서 간주되었고, 또 이에 따라 그들을 마치 부모처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졌고, 이로 인하여 언뜻 한국에서의 지도교수란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길을 인도하여주고 나아가서는 장래에 대한 문제까지 조언하여주고 또 부분적이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교수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선뜻 지도교수의 선택 또는 자신의 Role 모델로 채택할 수 있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킨 것도 사실이며, 오히려 지도 교수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위축시키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또 전통적으로 스승을 무조건 존경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종래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스승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는 아

나라는 인식을 심어놓았다.

더구나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이란 학생 그룹 대 선생 그룹과의 만남이며, 선생과 학생간의 개별적인 만남 또는 선생의 개인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이나 업적에 따라 이를 자신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학생 개인 차원의 만남의 기회는 매우 적었다.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어느 교육에서나 지도 교수제란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를 좁히고 교수를 모델로 삼아 자기 자신의 평생의 경력이나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누구나 부인하기 힘들다[1]. 그러나 정작 교육 분야에서 지도 교수제를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드물고, 의학교육에서는 그 관심도가 대단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2]. 소규모 그룹을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아직 지도 교수제가 정확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설립된지 70년이 넘는 대학으로서 아직껏 전통적인 교과과정을 고수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쓰고 있는 대학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스승과 제자간에 만남의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선생이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의 집단이었고, 이것이 의학교육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강의실에서나 실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 또는 질문 및 대답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고려대학교에서의 지도 교수제는 교수들에게 지도 교수제에 대한 사전교육 없이 상당히 급작히 이루어졌고 그후로 지도 교수제에 대한 보완 대책 없이 방임형태로 놔둔 결과 많

은 수의 학생들은 교수가 먼저 접근하기를 바랐고, 또 선생들은 선생들 나름대로 학생들이 언젠가는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배경에서는 학교가 어느 정도 교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생들과의 만남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위적이고도 외경스런 교수들의 이미지 때문에 쉽사리 학생들은 접근하지 못 할 것이다. 학생들과 교수가 가장 쉽사리 만난 예는 스승의 날(national teacher's day)로, 학생들이 스승에 대한 간접적인 감사의 표시 또는 인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는데, 대개 학생과 지도교수의 만남은 이때 이루어진 적이 상당히 많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정례화되어 자주 만나는 그룹도 있었는가 하면, 제 2차 설문조사 당시까지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학생 그룹도 많았다.

## V. 결론 및 제언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지도 교수제는 1994년 도입된 이래 3년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나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첫 2년간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패했다고 까지 결론 내리기는 힘들며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도입된 지가 불과 3년 밖에 안되었고, 아직도 교수들을 상대로 지도 교수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있지 않고 또 지도 교수제에 대한 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지도 교수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첫 2년간의 조사에서 보았듯이 한국적인 문화배경에서 교수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지도 교수제는 활성화되기 힘들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 정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도 교수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도 교수제 대한 교수의 열정, 치밀한 사전 계획, 지도 교수제 자체에 관한 교수들의 교육 그리고 본격적으로 학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막연히 지도교수제를 설정만 하고 방임 형태로 둔다면 지도교수제는 자칫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 참고문헌

1. Kirsling, R.A., Kochar, M.S. : Mentors i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t the Medical College of Wisconsin. Acad Med. 65:272, 1990.
2. Swenson, R.J., Boyle, A., Perez, E.L., Russell, J.A., Gosselin, J.Y. : Mentorship in Medical Education. Annals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 Surgeons of Canada 28:165.
3.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 Physicians for the Twenty First Century-Report of the Project Panel on the 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Physician and College Preparation for Medicine, Conclusion 5 Enhancing Faculty Involvement. Jounl Med Edu 59(11) Part 11:19, 1984.
4. Sykes, J.B. : The conche Oxford dictionary, 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